

한·칠레 FTA 연내 타결가능성 높아져

□ 한·칠레 FTA의 추진배경-수출교두보 확보 및 학습효과

- 한·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도임. 칠레가 첫 번째 대상국으로 선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①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수출교두보 확보 :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극복 ② 양국간의 보완적인 산업구조 : 한국 공산품이 주요 수출품목, 칠레 1차산품이 주요 수출품목 ③ 국내산업에 대한 고려 : 시장개방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④ 학습효과 :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경험이 있는 칠레를 통하여 경험 전수가 가능.
- 이러한 배경하에 1998년 쿠알라룸푸르 APEC정상회담시 양국정상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에 합의함.

□ 최근 경과 및 양측간 주요 쟁점- 상품양허안에 대한 의견차이

- 1998년 12월 양측간 실무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2001년까지 총 5차의 실무협상이 개최되었음.(2001년 3월의 5차 협상은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인하를 둘러싼 입장차이로 중간에 협상이 결렬되었음.)

- 양측간 정상회담의 합의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협정체결이 지연된 이유는 상품 양허안에 대한 양국간 의견차이임. 한국측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쌀, 쇠고기, 사과, 배 등의 협정 배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칠레는 주요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문제와 관련하여 자동차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등을 협상 예외품목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양허안을 제시함. 양측간 의견이 그대로 협정에 반영될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의문시되었음.

□ 향후 전망- 농업부문의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 교착상태를 보이던 양국간 협상은 최근 연내 타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02년 7월 양측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칠레산 사과, 배 등의 한국내 수입자유화를 칠레측이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냉장고 등 5개 한국산 가전제품을 자유무역협정 예외품목으로 하는데 잠정합의하고 세부절충을 진행하고 있음.
- 그동안 교착상태를 보이던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데는 칠레의 경우 그동안 현안이었던 EU와의 FTA 체결이 금년 4월 타결되면서, 한·칠레 FTA에 적극적 관심이 가능했고, 한국측의 경우 4년간 진행된 협상이 중단될 경우 대외신뢰도 저하에 대한 고려, 멕시코 등과의 FTA 추진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만, 잠정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바 정책당국이 여하히 이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협정 체결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의 확대가 세계적 추세이며, 자칫 소외될 경우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계와의 관계에서는 손실보전을 위한 장기적 농업정책 제시, FTA체결시 기대되는 경제효과 홍보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되는 시점임.

문의 : 국별조사실 배상욱 차장 subae@koreaexim.go.kr